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공동대표 : 강철규 안기호 이근식 조현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홈페이지 : www.ccej.or.kr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문 의 | 정치입법팀 T. 02-3673-2145 (팀장 김미영 간사 김상혁)

일 자 | 2012. 1. 18 (수)

제 목 | [성명] 박희태 의장의 의장직 사퇴 촉구 경실련 성명(총2매)

박희태 의장은 즉시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나라당 돈봉투 전당대회 파문이 연일 계속된 가운데 모든 의혹의 중심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해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 18일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모르는 일’이라 부인하며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소정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08년 전당대회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 금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희태 의장이 귀국하기 전날인 17일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구속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박희태 캠프 사무실 아래층에서 원외 조직에 금품을 뿌렸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되었다.

박희태 캠프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련된 모든 정황과 의혹에서 박희태 의장은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또한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봤을 때 박 의장이 모르는 일이라며 지나칠 수 없어 보인다. 첫째로, 박희태 캠프 운영 당시 그의 최측근 비서들이 돈을 제공했다는 고승덕 의원의 진술이 있다. 고 의원은 전당대회 2~3일 전 현금 300만원이 든

자신의 최측근인 비서들이 돈을 제공하고 비선 사무실을 통해 돈을 전달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제보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만으로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금품이 살포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

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캠프의 주인이었던 박 의장은 금품이 살포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오로지 자신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사무실 아래층에서 막대한 금품이 오가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는데, 이 모든 일을 당사자인 박 의장 몰래 캠프 실무진들이 모두 기획하고 수행했다는 것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박희태 의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할 상황이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장이 국회의장 신분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박 의장이 더 이상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직에서 즉각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옳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의 신분을 이용해 의혹을 피하지 말고 의장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참여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